



이경해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GATT본부서 할복자살기도

-치료후 11월 26일 귀국



이 경 해 회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한국농촌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의 제네바를 방문한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이경해회장(43세)이 지난 11월 5일 GATT 사무국 복도에서 할복자살을 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1월 26일 귀국했다.

이회장은 자살기도로 복부에 10cm의 상처를 입고 제네바주립 캔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미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다.

이회장은 강춘성 농단협회장과 농협조합장 2명, 축협조합장 1명 등과 함께 11월 4일 출국, GATT본부와 벨기에 EC본부, 워싱턴 등을 둘러 우리나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한국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 되도록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회장의 자살기도는 교착상태에 빠진 UR농산물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칼라힐스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덴켈 가트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뒤 한시간 후 드쥬 농산물협상그룹의장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우리의 어려운 입장이 수용될 것 같지 않자 갑자기 복도에서 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경해회장의 할복자살기도를 전폭 지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을 존폐위기로까지 몰고갈 UR농산물협상을 결사반대하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전북 장수출신으로 지난 66년 전주농립고, 74년 서울농업대(서울시립대 전신)를 졸업, 고향에서 7만여평의 산지를 개간해 현재 젓소와 염소 1백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88년 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에대해 많은 양축농가들은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조차 할복이란 극한 상황까지 연출하게 된 농정의 심각성을 정부는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류 연동가격제 내년부터 폐지 방침

-내년 7월부터 도체등급제 실시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육류의 연동가격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육류의 안정공급과 수급조절을 위해 축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소·돼지의 상하한가격을 고시하고 내년 7월부터 우선 서울 3개 도매시장부터 육류등급제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상정 육류등급제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 나

갈 한국축육개량협회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 육류등급사를 채용, 교육후 서울 3개 도매시장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또 육류의 소비자값 자율화조치는 고기의 질과 부위에 따라 값을 달라하는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단계이고, 내년 7월부터 도축장의 「도체등급제를 전면 시행해 모든 정육점에서 쇠고기는 10개부위, 돼지고기는 7개부위로 나누어 차등가격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육류 연동가격제 폐지를 앞두고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수입쇠고기 포장육가격을 11월중 중등육 5백g(1근)기준 3천3백원에서 2천8백50원으로 13.6% 인하하고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부위별 정형방법 및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진열과 표시방법 등을 고시, 육류가격자율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 실시에서 우려되는 점은 중간정육점·백화점 업자들이 과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던 것과 같이 중등부위의 고기를 고급부위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초기에 일시적인 시행착오가 우려되나 이를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불패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해 생산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 「UR타결이후의 대응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월 12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정부관계자, 축산관련단체 인사, 축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UR타결 이후의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농림수산부 이인형 축산경영과장) ▲ 축산물가



격제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농림수산부 김경남 축산물유통과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토론과 종합토론이 있었다.

본회에서는 이명복부회장이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주제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명복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시장개방에 대응해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양돈업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 전업농가에 양축자금 대폭 지원 ▲ 시설개선자금의 장기저리융자가 필요하며, 말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원자재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본회에서 노영한전무이사, 최채우이사, 성정표이사, 김해수이사, 정희완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환경처, 축산폐수에 관한 법 제정 방침

—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중 축산폐수 항목 신규제정법에 일원화

환경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 축산시설은 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중간 규모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것을 별도 법을 제정, 일원화 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6일 새로 제정할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시장·군수에게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무를 부여 ▲ 시장·군수에게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케 하고 ▲ 현행 대규모 축산시설은 환경보전법에서, 중간규모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것을 신규 제정법으로 일원화 ▲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규제대상 이하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대상 이하의 소규모축산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 분뇨 등에 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계몽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화협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 공판장 군지역에도 설치 허용

농림수산부는 11월 2일 현재 시지역에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축산물 공판장을 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공판장을 경유한 공판장은 타지역에도 제한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이외의 지역이 지가가 낮고 부지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 소비지에서 도축시 발생하는 폐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축유통체계를 지육유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돼지 20두이상 사육농가 축산분뇨 정화시설 40% 설치

돼지 2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전국의 양돈농가

중 40%가 축산분뇨 정화(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양돈장은 546곳인데 이중 447곳이 배출시설을 설치, 82%의 설치율을 나타냈고, 폐기물관리법 대상농가는 2,705농가중 1,865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 69%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그밖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20두이상 양돈농가 20,006농가중 6,884농가가 정화시설을 설치해 34%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전국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현황(양돈장)

구 분	설치대상	설치농가	설 치 율
환 경 보 전 법	546호	447호	82%
폐 기 물 관 리 법	2,705호	1,865호	69%
법 적 규 제 이 하	20,006호		
합 계	23,257호	9,196호	40%

보전임지 전용시 대체조림비 면제

-농어가 주택, 축사, 창고 등 설치할 경우

산림청은 10월 23일 농어민의 부담경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가 주택의 건축, 농지·초지조성, 축사 또는 농림축산물의 창고 및 1차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조림비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공공·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국유림을 대부받는 경우 그 대부료는 임야가격의 100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할 방침이다.

종개협, 육류등급사 모집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권오걸)는 내년 하반기부

터 시행할 육류등급제에서 육류등급 업무를 담당할 등급사를 공개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4년제대학 축산계열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40세 이하이며, 응시원서 마감일은 12월 13일까지이다.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수의관계 법규, 육학, 상식(영어포함), 논문이며, 12월 16일 1차시험을 치른다.

△문의처 : 588-9301~5(한국중축개량협회 총무부 또는 육류등급사업부)

축산시험장 「육류등급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전략세미나」 개최

축산시험장(장장 : 설동섭)은 지난 11월 2일 축산시험장 대회의실에서 「육류등급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 주요 선진국의 육류등급제도 비교(축산시험장 전연후) ▲ 우리나라 육류등급제도 내용과 시행계획(중축개량협회 송성현) ▲ 양질쇠고기 생산을 위한 한우 사육기술 개선방안(축산시험장 이근상) ▲ 양질돈육생산을 위한 사양기술방안(축산시험장 탁태영) ▲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우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및 연구성과(일본대학 森地敏樹) ▲ 도살전후 처리방법이 육질에 미치는 영향(충북대 최양일) ▲ 육류등급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유통개선 방향(축협중앙회 박순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축협중앙회, 「양돈·양계 계열화 세미나」 개최

축협중앙회(회장 : 명의식)는 지난 10월 30일 축협 대회의실에서 「양돈·양계 계열화사업 세미나」를 개

최했다.

중앙회와 축종별 조합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 축협 양돈 계열화사업(축협 김경주대리) ▲ 축협계열화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회장)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청와대 농정담당비서관에 원철희 농협이사 임명

정부는 지난 10월 8일 원철희 농협이사를 새로 신설되는 청와대 농정담당비서관(1급 : 차관보급)으로 임명했다.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에 박석남 씨 선출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11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9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회장에 박석남씨(우진사료공업(주) 대표이사)를 새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또한 동 협회는 90년도 수지결산(안)과 9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박석남(신임, 우진사료공업(주))

▲ 부회장 : 남기수(유임, 동남수산), 김선규(신임, (주)충무산업)

▲ 상근 부회장 : 유동준

▲ 이사 : 서태수(신임, (주)남부), 이수영(유임, 동양화학공업(주)), 강효진(유임, 삼천포수산물(주)), 김철곤(유임, (주)오성사료), 유전목(유임, 협성사료), 장지식(신임, (주)홍창산업), 이경희(신임, 동화사료), 이세준(신임, 대지산업), 강형모(신임, 아세아향미)

▲ 감사 : 이남재(신임, 대일사료), 김영권(신임, (주)대유)

정부, 농어업총조사 실시

농림수산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농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농어가를 방문하여 가구원과 면접을 통해 12월 1일 기준의 농가수, 인구, 농경지, 가축가금수, 농기계, 문화용품, 가재영농형태별 등 농업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개인농가와 준농가 등이다.

툽밥발효돈사 발효상 60cm 이상 설치해야

폐수·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 툽밥발효돈사 돼지사육법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시험장 양돈과 정일병 연구관 등 연구진이 발효돈사에서 공해없는 돼지의 분뇨처리 가능성과 발효상 깊이가 겨울철 발효상 곤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코자 실시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겨울철에 실내외의 기온화에 의해 또는 외부와의 차단에 의해 발효상이 과습되어 곤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효상의 깊이를 60c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분뇨가 쌓여도 제대로 발효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서 발효상의 습도가 높아져 곤죽이 되는데 이로 인해 발효상표면에서 지하로 30cm 정도의 발효상 온도는 35℃로 양호하게 발효되는 것으로 나타나 발효상의 깊이를 60cm 이상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효돈사의 암모니아 농도는 1.5ppm으로 시멘트돈사의 5.5ppm보다 4.0ppm이 낮았고, 평균 실내온도는 시멘트돈사가 12℃였는데 비해 발효돈사는 6℃로 시멘트돈사 보다 낮았다. 대신 바닥이 발효로 인해 파스하기 때문에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농업진흥지역 지정

지난 16일 농어촌진흥공사가 주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농가주택만으로 10호이상 밀집된 지역은 물론 현재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의 상당수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발표내용중 특이사항은 농지전용 절차가 까다로운 절대농지중의 농업진흥구역은 전체의 43.7%로 나타나 16개군 지역의 절대농지비율 68.9% 및 전국의 절대농지비율 63.5%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농업진흥구역의 기준은 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이상 집단화된 농지로 영농기계화를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 주변농지, 농업용수원 상류지역 농지, 공단·마을 등 취락지역으로부터 진흥구역을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호해야 할 농지 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 상점·공장·건물이 혼재하는 지역일지라도 진흥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되 10호 이상의 농가주택만으로 밀집된 지역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 비해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양육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양육협회(회장: 허만기)의 사무실이 11월 10일 아래 장소로 이전되었다.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04-4(은주빌딩 3층)

▲ 전화: 511-4540, 514-3459

▲ FAX: 514-3459